



# 총재실

이 페이지는 다음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English | Español | Français | عربي | Русский | 中文 **한국어**

## 현 총재



### 김용 총재 약력

세계은행 그룹 총재

김용 박사는 2012년 7월 1일에 12대 세계은행 총재가 되었습니다.

의사이자 인류학자인 김용 박사는 20년 이상 국제 개발 사업에 헌신하며 불우하게 살아가는 전 세계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습니다. 세계은행 총재로 부임하기 전에는 미국에서 상위권에 드는 명문 대학인 다트머스 대학의 총장으로 재직했으며 “건강의 동반자(Partners in Health, PIH)”를 공동 설립했고 세계보건기구 HIV/AIDS부장을 역임했습니다.

다트머스 대학은 리버럴 아츠 칼리지와 의학, 공학 및 경영학 전문대학원, 예술과 과학 분야 등 19개 대학원 프로그램을 자랑하며, 3,300명의 교직원과 7억 달러의 예산을 운용하는 교육 기관인 다트머스 대학의 총장으로서 교육 프로그램을 축소하지 않고 재정 적자를 줄여 찬사를 받았습니다. 또한 다트머스 보건의로 전달학 센터를 설립하여 보건의로 전달 모델을 개발하고 더 낮은 비용으로 더 우수한 보건의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다트머스 대학 총장을 역임하기 전에는 하버드 의과대학원, 하버드 공중보건 대학원, 보스턴 브리검 여성 병원에서 의사 겸 부서장으로 일했으며 하버드의 프랑스와 크세비어 배그노드 보건 인권 센터장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1987년에 보스턴에 본부를 둔 비영리단체인 “건강의 동반자(Partners in Health)”를 공동 설립했습니다. 이 단체는 현재 4개 대륙의 가난한 마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약물 내성 결핵과 HIV/AIDS를 치료할 수 없다는 기존 인식에 도전한 건강의 동반자는 대규모 치료 프로그램과 지역 특성에 맞는 일차 진료를 통합해 이들 질병을 성공적으로 퇴치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HIV/AIDS부장으로 일했을 때에는 최초의 범세계적 AIDS 치료 목표인 ‘3 by 5’ 운동을 주도했습니다. 이 운동은 항레트로바이러스 약물을 사용하여 2005년까지 3백만에 달하는 개발도상국 HIV/AIDS 환자들을 치료하자는 것이었습니다. 2003년 9월에 시작한 이 야심 찬 계획은 결국 2007년에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이 업적으로 김용 박사는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2003년에는 맥아더 “지니어스” 펠로우십을 받았고 2005년에는 US News & World Report에서 미국을 움직이는 “25명의 리더” 중 한 명으로 선정되었으며, 2006년에는 Time 지가 선정하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100명” 중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1959년에 대한민국 서울에서 태어난 김용 박사는 다섯 살에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했고 아이오와 주 머스카틴 시에서 성장했습니다. 1982년에 브라운 대학교를 우등으로 졸업했으며 1991년에 하버드 의과대학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1993년에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인류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김용 박사는 소아과 의사 임연숙 씨와 결혼해서 아들 두 명을 낳았습니다.